

추억의 합격기

[1990년도 제25회 기술고등고시 수석]

새로이 출발하며



이 제 원

『학력사항』

- 서울 충암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대학원 석사졸업

『경력사항』

- (前)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 서울특별시청 도시재생본부 본부장
-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국장
-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단장
- 1990년도 제25회 기술고등고시 수석합격

I. 글을 시작하며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던 때가 아련하게만 느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며 당시의 느낌을 되새기는 쉽지만 그것을 말로 혹은 글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표현력이나 문장력이 모자라는 저로서는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글을 접하게 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도서관이나 고시원의 폐쇄된 공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로의 발돋움에 시작함에 있어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제 자신에게도 과거를 잊지 않은 현명함을 일깨우는 촉매제로써 작용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II. 방향과 선택

나는 대학생이 되는데도 꽤나 방향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한 성적은 2학년말에 이르러서는 대학에는 가기

힘든 학생으로 자타가 인정하기에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대마다 백지를 제출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남는 시간을 보내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부터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폐부를 찌르는 아픈 충고는 나로 하여금 비로소 나의 앞날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3학년이 되면서는 온 정열을 기울여 공부에 열중하는 모범생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초가 부족했던 터라 한해를 재수한 후에야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에 대한 고마움은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의 분위기는 매우 자유분방했고 대학입시라는 중압감에 억눌려 있던 나에게서는 다시한번 의식없는 망나니로 타락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의미하게 대학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은 너무나 필연적이기까지 했습니다. 3학년 초에 본디 농구를 좋아했던 나는 운동도중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만 것이었습니다. 휴학원을 제출해야 했고 몸이 완쾌되자 급기야 12월 초순 스산한 겨울바람과 함께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7개월간의 힘든 군대 생활을 통해 나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참다운 생활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군대 전역 후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집안형편을 고려해야 했고 무엇보다 추구

하는 과정에서 도전적인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고시를 준비하기로 마음 먹고 복합과 동시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누군가 왜 고시를 준비를 준비하게 되었느냐, 공직관을 말하라 하면 대답할 바를 찾지 못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라 해서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직업을 갖든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임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Ⅲ. 실패와 재도전

학비조달을 위해 복합과 동시에 입주과외를 시작했습니다. 통학거리도 멀었을 뿐더러 학과공부와 1차시험 준비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교회활동 등을 병행하기란 여간 벅찬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시험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책을 구입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군입대 전의 나태했던 생활과 군대생활 3년이란 공백기를 거친 나에게는 1차시험 과목 중 어느 하나도 자신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영어가 어렵게 느껴졌고 헌법은 생소한 과목으로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 생활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 같다 담배도 끊었고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고조된 학내의 민주화 열기는 점차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고 6월에 이르러서는 급

기야 동문 후배인 이한열군의 죽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적인 갈등을 견디기 어려워 여름 두 달을 강동시립도서관을 공부장소로 정해 공부하면서도 나의 머리는 과연 나라의 존재가 지금의 상황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일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6. 29 선언이 발표되고 일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에서 오는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시험일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위하면서 시험을 치렀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고 굳게 자신과 약속하고 겨울방학과 동시에 학교 앞 소망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IV. 제1차시험의 과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단순한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학교도서관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는 고시원으로 돌이와 마무리하는 생활로 일관했습니다. 본래 운동을 좋아했기에 점심식사 후 한시간 가량 학교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3월까지의 1차시험과 2차시험 과목을 병행하여 공부하였다. 이 기간에는 2차시험 과목 중 타 과목에 비해 개념과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재료역학과 구조역학 수리학, 그리

고 국민윤리 기본서를 각 1회독했으며 1차과목은 이재옥의 고시영어연구와 Vocabulary 22,000, 이기백의 한국사신론을 각 1회독 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2차과목을 제쳐놓고 2차시험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너무 방만하게 계획을 한 관계로 실패했던 경험을 살려 한 권을 보더라도 충실하게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어는 아카데미토플을 1회독하고 이재옥의 고시영어연구를 반복하였습니다. 틈틈이 모의문제를 시간을 재며 풀어 봄으로써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식사 후 등의 줄리는 시간에 각성효과로도 그만이었습니다. 헌법의 경우는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을 2회독 한뒤 권영성·민경식 문제집을 2회독 하였습니다. 문제집 분량이 꽤 많았는데 마무리를 못해 시험 때 실수한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물리학개론은 전년도에 서점에서 구입한 대학물리학으로 이해를 돕고 박만장과 배선호 문제집을 위주로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물리는 순발력을 요하는 과목이므로 쉬운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풀 수 있도록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더운 8월이 지나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시험을 치른뒤 어느정도 자신이 생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더해갔고 취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까지 겹쳐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감을 발표날 아침 신문의 활자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말끔히 씻어졌습니다. 정말로 뿔 듯이 기뻐했습니다.

V. 제2차시험의 과정

앞서간 선배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여러 가지 2차공부에 필요한 조언도 얻었습니다. 1차시험에 소요됐던 책들은 모두 치우고 2차공부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책꽂이에 꽂아두고 보니 자신감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12월까지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본서를 이해위주로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12월 31일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조출한 망년회를 가졌습니다. 풍성히 열매맺는 한해를 기억하면서...

처음 두달 동안은 기본서를 읽으며 자료를 보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두달은 기본서이외의 책들을 참고하여 빠진 부분을 추가 정리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반복학습했으며 나머지 1개월 동안은 범위축소와 답안작성 연습 등으로 계획했습니다. 범위축소작업이란 너무 범위가 넓게 잡아 실제 답안작성시 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학부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출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는 작업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작업이전까지는 모든 부분을 살살이 공부해 둬으로써 만약의 경우 출제될 때는 개념정도라

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막바지에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년도에 수리학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계산문제가 80점씩이나 출제되어 수험생 모두가 당황했던 기억 때문에 논술형외에 계산문제를 따로 다루어 보아야 하는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었으나 점차 공부하면서 계산문제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한 후 틈틈이 그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아 연결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공부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역으로 계산문제를 풀으로써 내용의 이해도 빠르다는 사실 또한 학습능력면에서 고려해 보직합니다.

6월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시간 절약을 위해 학교도서관을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온종일을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이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점차 능률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8월 초순이 지나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주일 정도를 그 상태로 지나자 서서히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극도로 학습능률이 저하되었습니다. 순간 무언가 생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하에 시험일을 꼭 두 달 남기고 학교와 바로 근접한 곳에 위치한 하숙집으로 거처를 옮겨 다시 학교도서관의 구석방(골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시험이 미칠 때까지는 초긴장 상태의 연속이었습니다. 머리 아픈것도 말끔히 나아졌습니다. 도서관이 가까운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 새벽 6시에 도서관 구석

자리를 잡고는 졸리는 시간에는 구조역학 계산문제 풀이로 잠을 깨웠고 도서관 문 닫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에 전과목을 취약과목과 자신 있는 과목을 구별하지 않고 일정 분량씩 등분해 학습함으로써 전체적인 진도를 맞추어 나갔습니다. 하숙집으로 식사 하러 오가는 시간은 공부한 내용을 되새겨 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기에 가능하면 혼자 다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정리가 중요하다는 선배들의 조언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었기에 조금도 빈틈을 둘 수 없었다. 하루 중 유일한 즐거움은 점심 식사 후 벤치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혼자 캠퍼스를 바라보며 20분 정도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시험 마지막 날까지 생활패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첫날은 국민윤리와 응용역학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답답한 심정으로 국민윤리 문제를 받았습다. 50점 문제가 시사성 있는 통일문제와 북방정책의 연계문제였으므로 어느 정도 관심있게 신문의 칼럼등에서 읽은 기억이 났으나 구체적인 내용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황설수설한 것 같았습니다(52.66점). 오후의 응용역학은 평이한 계산문제 중심이어서 검산으로 최종 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설명형 문제는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아는 문제여서 다행스러웠습니다(87.33점).

둘째날 오전에 측량학 문제가 펼쳐지는 순간 주위에서 아! 하는 탄식의 소리가 들려왔

습니다.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였으나 다행히 정리해 보았던 문제여서 너무 내용을 충실히 쓰려다 보니 종료시간에 쫓겨 서둘렀습니다(78.00점).

오후의 수리학은 전년도와는 반대로 모두 원론적인 논술형으로 출제되어 당황하였고 측량학 시험때 시간에 쫓기던 기억에 50점 문제를 너무 급하게 쓰느라 내용이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66.66점). 마지막날 토질역학 시험은 오후에 있었습니다. 먼저 치른 과목들을 별다른 실수 없이 치렀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서브노트를 대충 훑어보고 시험장으로 행했습니다. 한숨을 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교실은 마치 치열한 교전 중 잠시 충성이 멈춘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문제는 전례없이 50점짜리 계산문제로 출제되었다. 순간 당황했으나 다행히 계산식을 유도해내어 응용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한 과정이 틀리면 이후는 모두 틀려버리는 것이 계산문제의 맹점이므로 굉장한 집중력을 요했습니다(84.66점).

항상 농담삼아 시험이 끝났을 때에 맞볼 수 있는 짜릿한 해방감이 있기에 시험은 꼭 필요하다고 뇌까리곤 했던 나로서도 이날만큼 큼직한 해방감을 맛본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학교선배들과 어울렸으나 맥주 몇잔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VI. 꿈은 작을수록 아름다워

다음날부터는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은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간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연기시켰던 예비군 훈련도 기꺼이 받았습니다. 합격자 발표전날 저녁 포항 누남택에서 상경하자마자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친구 몇몇과 후배들이 모였고 고시원 실장님의 전화통화 후 “거봐 내 될줄 알았어.”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께 먼저 전화드렸습니다. 모두모두 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나의 주의에 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6명 중 1명이 제3차면접시험에서 탈락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거의 성적순으로 결정하므로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으나 면접일까지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마침 면접위원 중 한분이 모교 은사님이셔서 면접 다음날 찾아가 뵈더니 성적이 좋더라는 말씀에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신문에서 전체수석이라는 활자 뒤에 있는 내 이름을 보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공부할 당시 가끔 머릿속으로 그려보고는 혼자 피식 웃어버리곤 했던 것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질 중이야! 게다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수석이란 사실은 차라리 경이로웠습니다.

VII. 글을 맺으며

연수과정이 끝나갈 무렵인 지금 아직은 공무원사회의 실체에 접해보진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꿈을 갖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실현된 꿈에 환희를 느끼는 꿈같은 고시생시절에 향수를 느끼는 것은 아마도 거대한 사회속의 내 자신이 너무 왜소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발 앞서 출발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에게 지금 꿈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생활에 성실할 수 있는 기본요소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를 행운의 여신이 외면치 않는다는 진리를 저는 피부로 느꼈기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지면을 빌어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글을 맺으려 합니다.